

수요 맞춤형 해외산업단지 조성방안 연구: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Demand-based Strategies for Overseas Industrial Complexes

정연우** · 이승은***

Yeun-woo Jeong** · Seung-eun Lee***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investment attraction in manufacturing and reviews the current trend of Korean companies' overseas expansion, targeting Vietnam and Indonesia to create a demand-based overseas industrial complex. Furthermore, a survey was conducted with domestic companies located in industrial complexes to analyze the details of their intention to enter overseas markets. By linking the previously specified industrial sectors for investment attraction with the desired industrial sectors for overseas expansion and previously entered industries, measures to promote overseas industrial complexes are proposed. For instance, combining with already expanded industries, entering attractive fields to develop new markets, and deriving specialized strategies for each country. These strategies can be useful as basic resources when establishing plans that reflect the domestic and foreign needs of the key target countries to attract companies to overseas industrial complexes.

Keywords : Demand-based, Overseas Industrial Complex, Investment Attraction, Intention to Enter Overseas Markets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20년 기준으로 제조업 부문이 우리나라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6%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은 2000년 이후 40% 이하 수준으로 다소 둔화되는 추세이다. 특히,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고위기술산업군을 제외한 중고위·중저위·저위기술산업군의 부가가치율은 감소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처럼 과거 우

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한 제조업의 기여도가 점차 하락함에 따라 제조업을 위시한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탄소중립, COVID-19, 글로벌 공급망 재편, ESG 경영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한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경제성장에 미치는 제조업 부문의 기여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의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 및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등은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이하 'GVC')의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일본, 미

*이 논문은 2022년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과제 '국내외 니즈에 기반한 LH 해외산업단지 추진전략 연구' 내용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주저자·교신저자: ywjeong@lh.or.kr)

***LH 토지주택연구원 주임연구원(seungeun324@lh.or.kr)

국, 유럽연합 등을 위시한 선진국들은 리쇼어링(Reshoring) 정책 추진을 통해 자국기업의 유턴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최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우리기업의 리쇼어링을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따른 대응방안의 일환으로서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그간 지속되어 왔던 제조업 부문의 해외투자 및 생산기지 진출은 여전히 수출유발 및 수입전환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두 가지 정책에 대한 선별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한계에 이른 중소기업 중 해외 진출 희망여부를 조사하고, 이들 중 해외진출이 적합한 업종을 대상으로 필요한 지원책을 제시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리쇼어링에 치우친 정책 추진보다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이들 기업이 이전한 지역경제를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함께 연계할 필요가 있다.

해외 생산거점 조성을 희망하는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LH는 해외산업단지의 개발과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진출수요가 많은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 국가를 중심으로 정부간 협력(Government to Government, 이하 'G2G')에 기반한 해외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근래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LH에서 조성하는 해외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모집시 앞서 서술한 것처럼 국내에서는 성장에 한계가 있으나 해외진출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를 지원한다면, 해외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는 물론 최근의 GVC 변화에 대응한 우리나라와 진출대상 국가 간의 개발협력 방안도 보다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국내 제조업의 해외진출은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일정 부분은 국내에서의 투자와 고용의 감소를 야기하여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부작용도 가져올 수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중점을 두고, 한국기업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국가별 투자유치 분야 및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의 수요를 조사하고, 이들을 상호 연계시킴으로써 수요에 기반한 해외산업단지 조성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요에 기반한 해외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 투자유치 분야와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현황을 살펴보았다. 투자유치 분야는 국가별·지역별 산업발전전략과 투자법 등에 제시된 제조업 부문 수혜 분야를 통해 조사하였다. 제조업 부문 해외진출 추세는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통계를 활용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최근 30년간 신규법인수 및 투자금액을 분석하였으며, 2020년 말 기준 현지에 진출해 있는 현지법인 신고건수와 세부업종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해외진출의향에 대한 세부사항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해외진출 희망업종 도출 및 해외산업단지 입주시 요구사항,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시 정책지원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조사한 투자유치 분야와 해외진출 희망업종 및 기진출 업종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기진출 업종과의 연계,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유치분야 진출, 국가별 특화전략 도출 등 해외산업단지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2. 선행연구 검토

2.1 글로벌 공급망 변화 연구

존 더닝(John. H. Dunning)의 OLI 패러다임에 따

르면, 해외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이 갖추어야 할 3가지 우위가 있다. 이는 해외 진출 및 직접투자를 하는 기업은 외국 환경 및 사회적 여건에 대해 생소하기 때문에 현지기업보다 불리한 경쟁관계에 놓이기 쉽기 때문이다(김승일 외, 2013). 첫째, 독점적 우위(Ownership-specific advantages)는 현지기업이 보유하지 않는 요소로 현지에서 진출기업의 불리한 경쟁을 극복할만한 요소를 의미한다. 둘째, 현지 입지 우위(Location-specific advantages)는 국내보다 현지의 환경이 갖는 유리한 조건을 의미하며, 보통 저임금 대비 생산성과 현지 산업수준 및 기술 인프라 등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내부화 우위(Internalization Incentive advantages)는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 기업의 기존 노하우 및 설계 경쟁력 등의 지적 자산에 대한 사용료를 현지기업으로부터 받기보다는 현지에서 통합하여 직접 생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OLI 패러다임과 같이 기업이 갖추어야 할 우위뿐만 아니라, 해외진출 기업은 글로벌 여건 및 공급망 변화에 따른 추세에도 촉각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소기업의 주요 성장전략 중 하나의 수단으로 글로벌화(Globalization)가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Ahmad and Hoffman, 2007; Fletcher, 2001). 글로벌화로 인하여 지역이나 시간을 초월하는 여건이 마련되었고, 이는 개별 국가 및 지역의 연계가 아니라 전세계가 유기적으로 연계 및 작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 전통적으로 수입·수출·투자 및 무역 등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제조업 부문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공급망은 제품 생산을 위해 원재료 조달부터 완제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재화 및 서비스 등의 흐름을 의미한다(이준, 2022). 과거에 공급망의 변화는 개별 국가 및 동종 산업계 내의 이슈였다. 그러나 대규모 자연재해, 국가 간 수출입 금지 조치, 보호 무역주의 확대, 코로나19 팬데믹 등과

같이 공급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공급망 구조도 민감해졌다고 볼 수 있다. 공급망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제조업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업보다 제조업 부문의 전후방 참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수출의존도가 높고 후방연계 GVC에서 특히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임은정, 2021)). 때문에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부 지원이 필수적 요소로 검토되어야 하며(Alvarez, 2004; Wilkinson and Brouthers, 2006), LH와 같은 공공부문에 일정 부분 지원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러한 GVC 재편에 대응한 전략으로 리쇼어링 정책 및 제조업의 해외진출이 대두되어 왔다. 2002년부터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 및 투자대상국 1위였던 중국은 2006년 노동법과 환경법이 개정되면서 진출 매력도가 낮아지기 시작했다(성장환 외, 2014). 이처럼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여겨졌던 중국의 인건비 상승, 외국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철회,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현지에 있던 글로벌 기업들이 보다 생산비용이 저렴한 국가로 이동하거나 본국으로 회귀하는 리쇼어링 등을 고려하는 현상이 나타났다(정희철 외, 2020).

2.2 해외산업단지 조성 연구

장인석 외(2013)는 1인당 GDP가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를 선별한 후 현지법인 신고건수가 10건 이상이며 제조업 부문 신고건수가 5건 이상인 곳을 선별하여 우리기업에게 안정적인 산업입지를 제공하기 위한 산업입지결정변수를 도출하고, 분석국가에 적용하여 국가별 비교우위를 분석하였다. 평가지표는 투자 유인정책, 시장수요 잠재력, 제조업 신고건수 변화, 노동시장 유연성, 인구구조 등으로 구분하여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 및 분석하였다.

정연우(2017)는 미얀마를 대상으로 토지권리 확

보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반적인 법제도 고찰, 외국인 투자자와의 합작 개발사업 사례 등을 검토하여 미얀마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권리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개발초기에서 외국인투자 및 경제특구 관련 법제도를 통한 토지사용권 취득으로 최대 75년 까지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운영단계에서는 개발주체가 토지를 재임대 받아 사용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성장환 외(2014)는 해외진출 애로사항을 검토하여 해외진출 초기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현장밀착 및 수요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외산업단지 조성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등 분석대상 국가에 대한 토지 소유가능 여부, 기업 설립 구조, 세금, 법정최저임금, 경제활동인구구조 등의 지표에 따라서 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해외진출 시 단독 법인으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 용지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해외산업단지 조성의 예상수요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검토하였으며 기업수요에 의한 해외산업단지의 필요성은 다양한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을 밝혔다.

한편, 김태훈 외(2021)는 해외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검토해야 할 요소를 도출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분석을 시행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검토 요소로서 크게 투자국의 외교역량·사업주체의 전문성·유관기관 연계성, 현지국가의 경제수준·인프라·노동력·지원정책 등을 도출하였다. AHP분석결과, 투자국보다는 개발대상국의 중요도가 높았고, 검토요소 중에서는 지원정책, 인프라, 노동력, 경제수준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토요소를 세부요인으로 구분했을 때에는 개발대상국의 인허가 편의성, 숙련노동자 확보 편리성, 토지사용 용이성, 외교역량, 기획전문성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2.3 선행연구와 차별성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은 시장확대 및 해당 산업의 발전 등 긍정적 효과를 유인한다. 그러나 경쟁우위 산업이 국내 시장에 투자기회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해외투자 및 진출을 확대할 시에는 궁극적으로 부정적 효과 우려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노후산업 단지 및 공업지역에 입주한 기업 중 실제로 해외산업단지 진출 의향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해외산업단지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가진 주체의 응답에 따라 도출된 해외진출 선호 인센티브 및 중요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국가별 해외진출 희망업종을 추출하고 국가별 연계방안을 제시한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3. 진출대상 국가의 제조업 부문 유치업종과 한국기업 진출현황

3.1 베트남의 제조업 부문 투자유치 분야 및 한국기업 진출현황

베트남 정부에서 2014년 발표한 「2025년까지의 산업발전전략, 2035년을 향한 비전(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through 2025, vision toward 2035 | Decision 879/QĐ-TTg)」에 의하면, 베트남은 제조업을 우선적 발전분야로 선정하고, 세부적으로 농림수산업, 농업기계, 수출용 섬유·의류 및 가죽·신발 제조업,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을 주력 산업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한편, 베트남 투자법(2020년 개정)에서는 이전의 조건부 투자분야에 해당하는 다수의 사업들을 삭제함으로써 투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더불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베트남 시장접근조건 및 분야를 규정화하여 외국인 투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 수혜분야에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첨단기술 등 미래기술들을 포함하여 부품소재, 전자제품 등 다양한 업종을 망라함으로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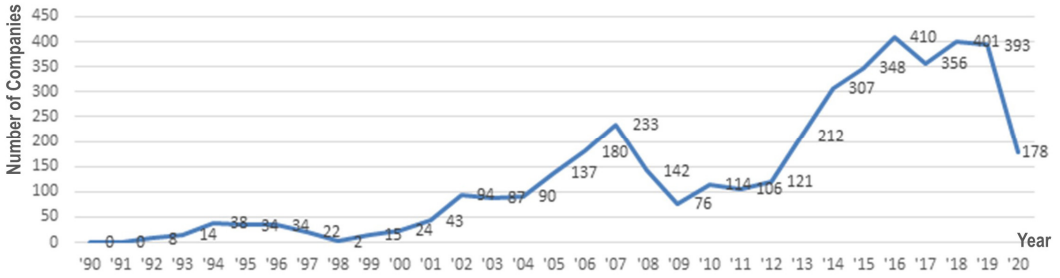


Fig. 1. Number of New Overseas Corporation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Vietnam)

Source: Jeong et al. (2022) (in Kor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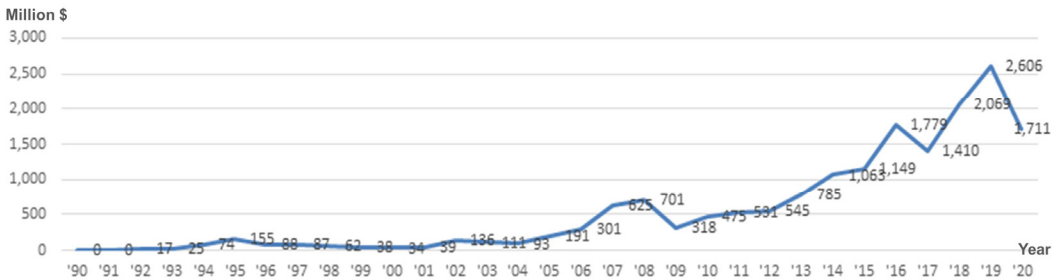


Fig. 2. Amount of Investment by Local Corporation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Vietnam)

Source: Jeong et al. (2022) (in Korean)

Table 1. Number of Registrations of Local Corporation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Vietnam)

Year	'90	'95	'00	'05	'10	'15	'20
Number	0	62	55	315	516	1,182	1,320

Source: Korea Eximbank (in Korean)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까지 한국이 베트남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의 18.3%를 차지했으며, 베트남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우호적인 사업 환경 제공이 한국 기업에게 매력 요소로 여겨졌다(Kim, 2020).

다음으로 한국기업의 진출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0년(1990~2020) 동안 제조업 부문에서 매년 베트남으로 진출한 신규법인수는 누적 수치로 총 4,200 여개에 달한다. 제조업 부문에서 신규로 진출하는 한국기업은 연평균 140개 수준이며, 2010년 이후 그 수가 대폭 증가하다 최근에는 다소 주춤하는 추세를 보인다(Fig. 1).

최근 30년(1990~2020) 동안 제조업 부문에서 매년 베트남으로 진출한 현지법인의 투자금액은 누적 수치로 총 172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신규법인수 당 투자규모로 보면 약 400만 달러 수준에 달하는 액수이다. 달리 말하면 제조업 부문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매년 5억 7천 달러 정도를 투자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투자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최근에 다소 주춤하는 추세를 나타낸다(Fig. 2).

한편, 2020년 말 현재 베트남에는 제조업 부문에 1,320개의 우리나라 현지법인이 진출해있는 것으로 신고되었다(Table 1). 이를 제조업 중분류별로 세분해 보면,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

비 제조업이 330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129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108개),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102개) 등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2 인도네시아의 제조업 부문 투자유치 분야 및 한국기업 진출현황

인도네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세계 10대 산업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섬유 및 봉제, 식음료, 자동차, 전자, 화학 등 제조업 5대 중점분야 육성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산업 로드맵 「Making Indonesia 4.0」을 발표하였다. 「Making Indonesia 4.0」은 5대 중점산업 분야에 대한 자국의 높은 수요에 비해 미흡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참여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이들 부문에 대한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기업의 진출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0년(1990~2020) 동안 제조업 부문에서 매년 인도네시아로 진출한 신규법인수는 누적 수치로 총 1,162개에 달한다. 제조업 부문에서 신규로 진출하는 한국기업은 연평균 40개 수준이며, 2000년 이후 그 수가 증가하다 2010년 이후로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Fig. 3).

최근 30년(1990~2020) 동안 제조업 부문에서 매년 인도네시아로 진출한 현지법인의 투자금액은 누적 수치로 총 6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신규법인수당 투자규모로 보면 약 520만 달러 수준에 달하는 액수이다. 달리 말하면 제조업 부문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매년 2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투자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낸다(Fig.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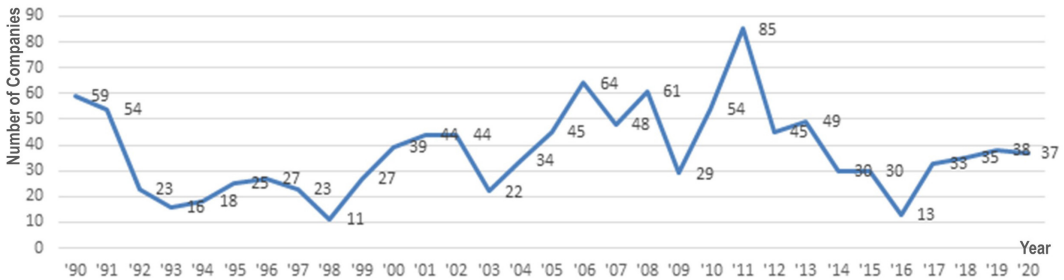


Fig. 3. Number of New Overseas Corporation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Indonesia)

Source: Jeong et al. (2022) (in Kor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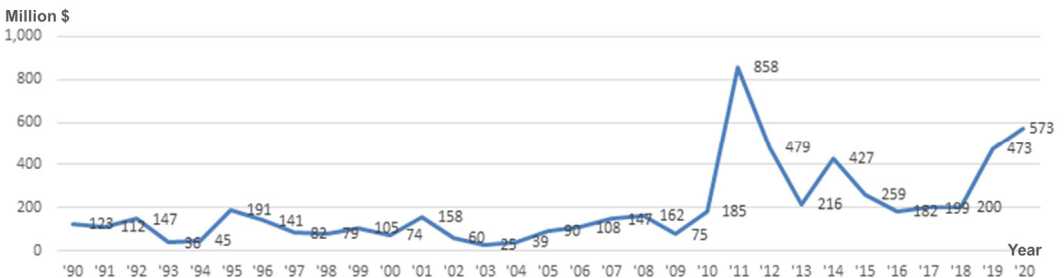


Fig. 4. Amount of Investment by Local Corporation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Indonesia)

Source: Jeong et al. (2022) (in Korean)

Table 2. Number of Registrations of Local Corporation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Indonesia)

Year	'90	'95	'00	'05	'10	'15	'20
Number	194	79	87	111	159	141	191

Source: Korea Eximbank (in Korean)

Table 3. Respondent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

	Group	Number	%
Location	Inside of Industrial complex	80	52.3
	Outside of Industrial complex	73	47.7
Type	Manufacturing sector	137	89.5
	Non-manufacturing sector	16	10.5
Number of full-time worker	$x < 5$	10	6.5
	$5 \leq x < 20$	43	28.1
	$20 \leq x < 50$	49	32.0
	$50 \leq x$	51	33.3
Total		153	100.0

Source: Jeong et al. (2022) (in Korean)

한편, 2020년 말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제조업 부문에 191개의 우리나라 현지법인이 진출해있는 것으로 신고되었다(Table 2). 이를 제조업 중분류별로 세분해 보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 26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3개), 섬유제품 제조업(21개),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19개)에 다수 진출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의향 분석

4.1 설문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LH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할 의향이 있는 한국기업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이에 국내 산업단지 등에 위치한 기업을 대상으로 LH에서 추진 중인 해외산업단지에 대한 입주의향 및 입주시 필요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구체

적으로 설문조사 방식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 위치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표본할당은 업종(제조업 중분류,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과 기업이 입지하고 있는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의 비율에 따른 무작위 표본추출(Random Sampling)을 통해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이메일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실시하였으며, 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조사하였다. 우선 할당된 표본 5,021개 기업에게 우선으로 연락을 취해 국내 사업장의 해외이전 또는 확장 의향을 묻고, 이후 해외이전 또는 확장 의향이 있는 기업 153개를 대상으로 이메일로 설문지를 보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153개 기업의 응답자 특성은 Table 3과 같다.

4.2 설문조사 주요 결과

4.2.1 국내 사업장 해외이전/확장 의향

국내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확장하려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 결과, 153개 기업 중 67개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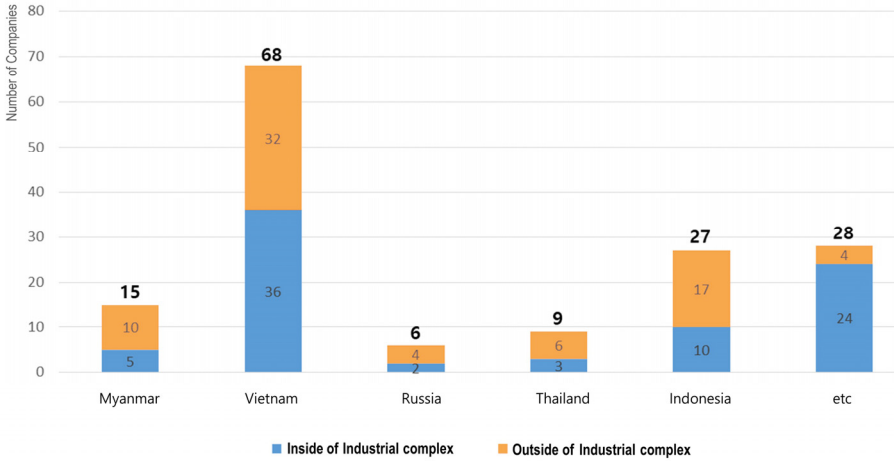


Fig. 5. Overseas Relocation/Expansion Areas

Source: Jeong et al. (2022) (in Kor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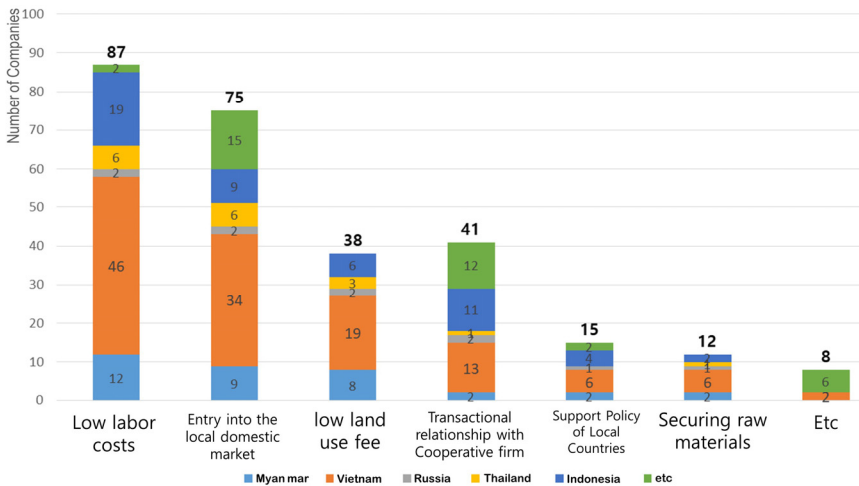


Fig. 6. Reason of Overseas Relocation/Expansion (Multiple Answers)

Source: Jeong et al. (2022) (in Korean)

(43.8%)이 해외로 이전·확장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86개 기업(56.2%)은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않았으나 이전·확장 의향은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다음으로 이전·확장하고자 하는 대상국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베트남’이 44.4%(68개 기업)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17.6%(27개 기업), ‘미얀마’ 9.8%(15개 기업), ‘태국’ 5.9%(9개 기업체), ‘러시아’ 3.9%(6

개 기업) 순으로 나타났다(Fig. 5).

이전·확장을 하고자하는 이유에 대한 복수의 응답 결과, ‘저렴한 노동력 활용’이 56.9%(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지 내수시장 진출’ 49.0%(75건),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 26.8%(41건), ‘저렴한 토지사용료’ 24.8%(38건), ‘현지 정부의 지원정책’ 9.8%(15건), ‘원자재 확보’ 7.8%(12건) 순으로 답변하였다(Fig. 6).

4.2.2 국내 사업장 해외이전/확장시 세부요건

해외로 이전·확장하고자 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현지 공장신설’이 75.2%(115개 기업)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다음으로 ‘국내공장 이전’ 7.8%(12개 기업), ‘국외공장 이전’ 5.9%(9개 기업)의 순으로 응답하였다(Fig. 7).

다음으로 국내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확장시 필요한 토지면적에 대해 질의한 결과, 평균적으로 약 4,700평이 필요할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얀마가 가장 넓은 토지면적인 평균 8,820평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인도네시아(5,033평), 베트남(3,627평), 러시아(3,392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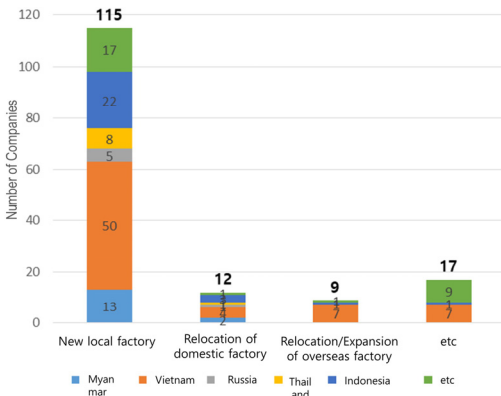


Fig. 7. Type of Overseas Relocation/Expansion

Source: Jeong et al. (2022) (in Kor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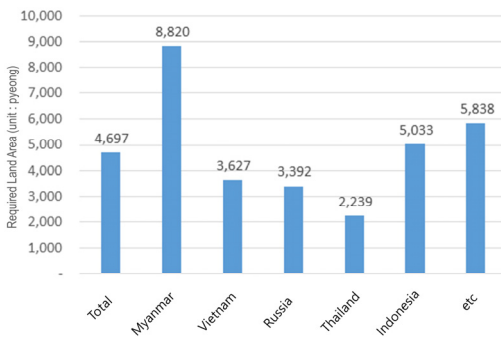


Fig. 8. Required Land Area for Overseas Relocation/Expansion (Average)

Source: Jeong et al. (2022) (in Korean)

태국(2,239평) 순으로 나타났다. 토지면적의 분포 범위에 따라서는 ‘1,000~3,000평 미만’이 21.1%(31개 기업)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10,000평 이상’ 20.4%(30개 기업), ‘100~500평 미만’ 17.7%(26개 기업)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Fig. 8).

4.2.3 산업단지 입주시 세부요건

해외산업단지 입주시 희망하는 입주형태는 ‘토지분양 또는 50년 장기임대’에 대한 수요가 45.8%(70개 기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임대형 공장’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30.7%(47개), ‘10년 미만 단기임대’를 희망하는 기업이 15.0%(23개)로 나타났다. 이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토지분양 또는 50년 장기임대’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러시아로 이전·확장을 희망하는 기업의 83.3%는 토지분양 또는 장기임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태국의 경우에는 ‘임대형 공장’, ‘토지임대 또는 10년 미만 단기임대’, ‘토지분양 또는 50년 장기임대’가 각각 33.3%로 동일하게 나타났다(Fig. 9).

해외산업단지 입주시 희망하는 인센티브에 대한 복수의 응답 결과, ‘세금감면 등 금융 및 세제지원’이 69.3%(106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공장설립 등에 대한 인허가 지원’ 65.4%(100건), ‘토지사용료 감면’ 62.1%(95건), ‘법률·노무·세제 등 현지화 컨설팅’ 45.1%(69건) 순으로 답변하였다. 이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세금감면 등 금융 및 세제지원’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얀마와 태국은 ‘공장설립 등 인허가 지원’, 러시아는 ‘법률·노무·세제 등 현지화 컨설팅’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0).

다음으로, 해외산업단지 입주시 중요하게 여기는 산업인프라에 대해서는 ‘전력’이 51.6%(79개 기업)로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물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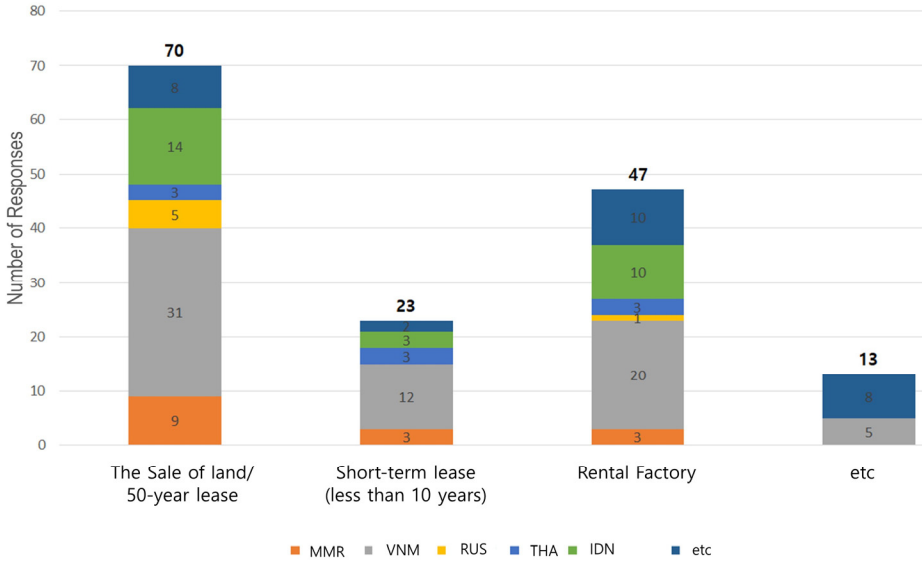


Fig. 9. Type of Occupancy in Overseas Industrial Complex

Source: Jeong et al. (2022) (in Kor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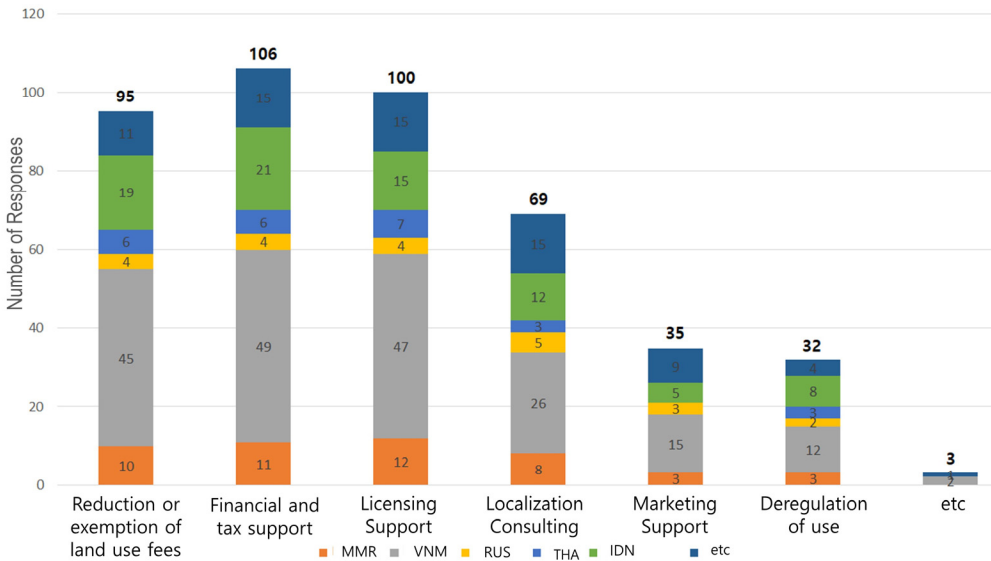


Fig. 10. Preferred Incentives for Moving into Overseas Industrial Complex (Multiple Answers)

Source: Jeong et al. (2022) (in Korean)

설’ 22.2%(34개 기업), ‘통신’ 13.7%(21개 기업), ‘공업용수’ 5.2%(8개 기업), ‘하수처리시설’ 3.3%(5개 기업) 순으로 나타났다(Fig. 11).

5. 수요 기반 해외산업단지 조성전략

5.1 베트남 진출 희망업종 및 연계방안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업종과 베트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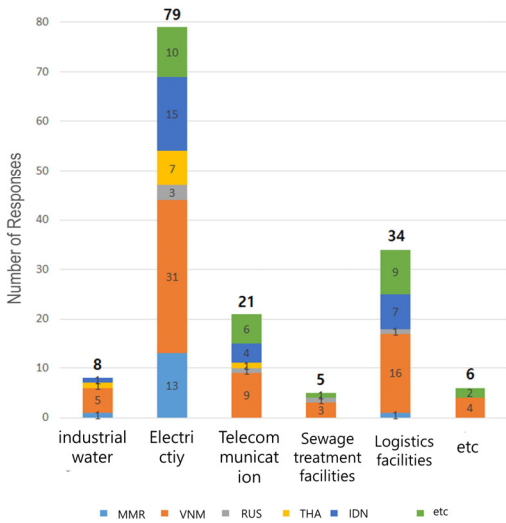


Fig. 11. Critical Infrastructure for Moving into Overseas Industrial Complex

Source: Jeong et al. (2022) (in Korean)

투자유치 분야, 현지에 기진출해 있는 업종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베트남 정부는 고위산업부터 저위산업까지 전반에 걸쳐 투자유치를 추진 중이며,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 및 향후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도 제조업 전반에 분포해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의복이나 가구 제조업과 같이 더 이상 투자유치 업종이 아닌 기업이 진출을 희망할 경우에는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투자유치 분야와 일치하는 진출희망 기업은 베트남 정부의 인센티브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과 이에 따르는 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외 단순한 생산활동을 넘어 유지·보수·운영까지 포함하는 MRO(Main-tenance, Repair, Operation) 분야와 우리나라의 뛰어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업 분야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홍보와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상으로 살펴본 특징을 바탕으로 LH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의 특화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유치 분야와 진출 희망분야 그리고 기진출 분야가 많은 부분 일치하는 베트남은 다양한 업종의 입주가 가능한 종합 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위산업군에 속한 기업 입지에 필요한 첨단시설의 도입 및 상호 유관한 업종간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용지의 블록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제조업 중분류 중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등 중후장대업종에 적합한 용지구묘를 고려하여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5.2 인도네시아 진출 희망업종 및 연계방안

인도네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업종과 인도네시아의 투자유치 분야, 현지에 기진출해 있는 업종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고위, 중고위 및 저위산업을 중심으로 투자유치를 추진 중이며,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도 다양한 업종에 분포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진출희망 기업들 중 유치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과의 연계를 통해 신규 진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으로 살펴본 특징을 바탕으로 LH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의 특화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고위산업 업종인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과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의 경우 한국에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입주 기업 모집시 국내 기업 또는 현지에 기진출해 있는 기업을 산업단지에 입주시키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의 유치분야와 일치하는 진출 희망업종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의 경우

Table 4. Matching between Industries Desired for Overseas Expansion, Attracting Industries and Already Entered Industries (Vietnam)

Group		A	B	C
High rank	Manufacture of pharmaceuticals, medicinal chemical and botanical products		○	○
	Manufacture of electronic components, computer; visual, sounding and communication equipment	○	○	○
	Manufacture of medical, precision and optical instruments, watches and clocks		○	○
Middle rank	Manufacture of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except pharmaceuticals and medicinal chemicals	○	○	○
	Manufacture of electrical equipment	○	○	○
	Manufacture of other machinery and equipment	○	○	○
	Manufacture of motor vehicles, trailers and semitrailers	○	○	○
	Manufacture of other transport equipment	○	○	○
	Maintenance and repair services of industrial machinery and equipment		○	○
Mid-to-low rank	Manufacture of rubber and plastics products		○	○
	Manufacture of other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	○
	Manufacture of basic metals	○	○	○
	Manufacture of fabricated metal products, except machinery and furniture	○	○	○
Low rank	Manufacture of food products	○	○	○
	Manufacture of beverages			
	Manufacture of textiles, except apparel	○	○	○
	Manufacture of wearing apparel, clothing accessories and fur articles	○		○
	Manufacture of leather, luggage and footwear	○	○	○
	Manufacture of wood and of products of wood and cork; except furniture	○	○	○
	Manufacture of pulp, paper and paper products			○
	Manufacture of furniture	○		○
Etc	Other manufacturing	○	○	○
	Construction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	
	Etc			○

Source: Jeong et al. (2022) (in Korean)

* A : Industries desired for overseas expansion

B : Attracting industries

C : Already entered industries

Table 5. Matching between Industries Desired for Overseas Expansion, Attracting Industries and Already Entered Industries (Indonesia)

Group		A	B	C
High rank	Manufacture of pharmaceuticals, medicinal chemical and botanical products		○	○
	Manufacture of electronic components, computer; visual, sounding and communication equipment	○	○	○
	Manufacture of medical, precision and optical instruments, watches and clocks		○	○
Middle rank	Manufacture of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except pharmaceuticals and medicinal chemicals	○	○	○
	Manufacture of electrical equipment	○		○
	Manufacture of other machinery and equipment	○	○	○
	Manufacture of motor vehicles, trailers and semitrailers	○	○	○
	Manufacture of other transport equipment	○	○	
	Maintenance and repair services of industrial machinery and equipment			
Mid-to-low rank	Manufacture of rubber and plastics products	○		○
	Manufacture of other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
	Manufacture of basic metals	○		○
	Manufacture of fabricated metal products, except machinery and furniture	○	○	○
Low rank	Manufacture of food products	○	○	○
	Manufacture of beverages		○	
	Manufacture of textiles, except apparel	○	○	○
	Manufacture of wearing apparel, clothing accessories and fur articles	○		○
	Manufacture of leather, luggage and footwear			○
	Manufacture of wood and of products of wood and cork; except furniture	○		○
	Manufacture of pulp, paper and paper products	○	○	○
	Manufacture of furniture	○		○
Etc	Other manufacturing			○
	Construction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	
	Etc			○

Source: Jeong et al. (2022) (in Korean)

* A : Industries desired for overseas expansion

B : Attracting industries

C : Already entered industries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오염방지 및 재해예방시설을 미리 갖추어야 하며,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 중후장대한 업종에 적합한 용지 규모를 고려하여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본 연구는 한국기업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국가별 투자유치 분야 및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의 수요를 조사하고, 이들을 상호 연계시킴으로써 수요에 기반한 해외산업단지 조성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제조업 부문 한국기업의 진출현황과 진출대상국의 투자유치 분야를 조사하였다. 최근 30년(1990~2020) 동안 제조업 부문에서 매년 베트남으로 진출한 신규법인수는 누적 수치로 총 4,200여개에 달하며, 2010년 이후 그 수가 대폭 증가하다 최근에는 다소 주춤하는 추세이다. 2020년 말 현재 베트남에는 제조업 부문에 1,320개의 우리나라 현지법인이 진출해있으며, 제조업 중분류별로 세분해 보면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 330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투자유치 분야와 관련하여, 베트남 투자법(2020년 개정)에서는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 수혜분야에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첨단기술 등 미래 기술들을 포함하여 부품소재, 전자제품 등 다양한 업종을 망라함으로써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최근 30년(1990~2020) 동안 제조업 부문에서 매년 인도네시아로 진출한 신규법인수는 누적 수치로 총 1,162개에 달하며, 2000년 이후 그 수가 증가하다 2010년 이후로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2020년 말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제조업 부문에 191개의 우리나라 현지법인이 진출해있으며, 제조업 중

분류별로 세분해 보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 26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3개), 섬유제품 제조업(21개),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19개)에 다수 진출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투자유치 분야와 관련하여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섬유 및 봉제, 식음료, 자동차, 전자, 화학 등 제조업 5대 중점분야 육성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산업로드맵 「Making Indonesia 4.0」을 발표하여 이들 부문에 대한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둘째, LH에서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할 의향이 있는 한국기업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전·확장하고자 하는 대상국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베트남'이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17.6%, '미얀마' 9.8%, '태국' 5.9%, '러시아' 3.9% 순으로 나타났다. 이전·확장을 하고자하는 이유에 대한 복수의 응답 결과, '저렴한 노동력 활용'이 56.9%로 가장 많았으며, '현지 내수 시장 진출' 49.0%,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 26.8%, '저렴한 토지사용료' 24.8% 등으로 응답하였다. 해외로 이전·확장하고자 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현지 공장신설'이 75.2%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다음으로 '국내공장 이전' 7.8%, '국외공장 이전' 5.9%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산업단지 입주시 희망하는 입주형태는 '토지분양 또는 50년 장기임대'에 대한 수요가 45.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임대형 공장'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30.7%, '10년 미만 단기임대'를 희망하는 기업이 15.0%로 응답하였다. 한편,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 현지의 대내외 여건에 따라 매우 상이한 인허가 절차, 법률·노무·세제 검토 역량, 토지사용료 등이 주로 애로사항으로 대두되었던 만큼, 해외산업단지 입주시 희망하는 인센티브에 대한 복수의 응답 결과, '세금감면 등

금융 및 세제지원'이 6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공장설립 등에 대한 인허가 지원' 65.4%, '토지사용료 감면' 62.1%, '법률·노무·세제 등 현지화 컨설팅' 45.1% 순으로 응답하였다. 입주시 중요하게 여기는 산업인프라에 대해서는 '전력'이 51.6%로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물류시설' 22.2%, '통신' 13.7%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출 희망기업의 업종과 진출대상국가의 투자유치 분야, 그리고 현지에 기진출해 있는 업종간의 연계를 고려하여 산업단지 특화전략을 제시하였다. 유치분야와 진출 희망분야 그리고 기진출 분야가 많은 부분 일치하는 베트남은 다양한 업종의 입주가 가능한 종합 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위산업군에 속한 기업 입지에 필요한 첨단시설의 도입 및 상호 유관한 업종간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용지의 블록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경우, 정부에서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고위산업 업종인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과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입주기업 모집시 국내 기업 또는 현지에 기진출해 있는 기업을 산업단지에 입주시키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유치분야와 일치하는 진출 희망업종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의 경우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오염방지 및 재해예방시설을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진출대상국별 특화전략은 해외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 국내·외 니즈를 반영한 기업유치계획 및 용지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접근한 해외진출 희망기업과 진출국가의 수요를 동시에 고려한 해외산업단지 조성방안은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리쇼어링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간 지속되어 왔던 제조업 부문의 해외투자

및 생산기지 진출 정책의 선별적이고 합리적인 추진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의 조사결과 도출된 해외진출 희망기업이 선호하는 각종 인센티브 등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현지의 제도적 여건상 실행가능성을 보다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제조업의 해외진출로 인해 일정 부분 야기될 수 있는 국내에서의 투자와 고용의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등의 부작용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산업단지 내 기업 이전 부지에 대한 계획수립, 즉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현재 입지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활용방안 또는 산업단지 재생과 연계한 새로운 사업모델 도출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승일·오화석·기현서(2013), 「대 중남미 중소기업 진출방안 연구 : OLI 패러다임 분석을 중심으로」,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김태훈·최명섭·김명수(2021), “해외 산업단지 입지 및 조성 성공요인 분석: AHP 분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연구」, 29(2): 87~116.
3. 성장환·정연우·황지옥(2014), “복합단지 개발을 위한 해외산업단지 수요실태 및 조성방안”, 「국토계획」, 49(4): 81~94.
4. 이준(2022),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대외 여건 변화와 대응 방안”, 「월간 KIET 산업경제」, 281: 7~22.
5. 임은정(2021), “글로벌 금융위기가 공급망 형태별 고용에 미치는 영향”, 「산업연구원 이슈페이퍼」, 1~122.
6. 장인석·성장환·정연우(2013), “해외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국가별 산업입지 비교우위에 관한 연구”, 「LHI Journal」, 4(3): 225~234.
7. 정연우(2017), “미얀마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권리 확보방안 : 외국인투자 및 토지제도를 중심으로”, 「LHI Journal」, 8(3): 145~159.
8. 정연우·송영일·이상현·이승은(2022), 「국내외 니즈에 기반한 LH 해외산업단지 추진전략 연구」, 대전: 토지주택연구원.

- Jeong, Y. W., Y. I. Song, S. H. Lee and S. E. Lee (2022), *Strategies for Promoting LH Overseas Industrial Complexes based on Domestic and Foreign Needs*, Daejeon: Land and Housing Institute. (in Korean)
9. 정희철·강내영·김건우·정귀일·유서경·문명기·강성은·도현우·이항구·정해식(2020),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무역의 미래」, 서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10. Ahmad, N. and A. Hoffman (2007), *A Framework for AD-dressing and Measuring Entrepreneurship*, Paris: OECD.
11. Alvarez, E. R. (2004), "Sources of Export Success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e Impact of Public Programs",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13(3): 383~400.
12. Fletcher, R. (2001), "A Holistic Approach to Internationalization",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10(1): 25~49.
13. Kim, H. M. (2020), "International Real Estate Investment and Urban Development : An analysis of Korean Activities in Hanoi, Vietnam", *Land Use Policy*, 94: 104486.
14. Wilkinson, T. and L. E. Brouters (2006), "Trade Promotion and SME Export Performance",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15(3): 233~252.
15.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2022.8.30 읽음. <https://stats.koreaexim.go.kr/main.do>. Korea Eximbank, "Statistic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ccessed August 30, 2022. <https://stats.koreaexim.go.kr/main.do>. (in Korean)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수요에 기반한 해외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 투자유치 분야와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해외진출의향에 대한 세부사항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앞서 조사한 투자유치 분야와 해외진출 희망업종 및 기진출 업종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기진출 업종과의 연계,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유치분야 진출, 국가별 특화전략도출 등 해외산업단지 조성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특화전략은 중점국가를 대상으로 국내외 니즈를 반영한 해외산업단지 기업유치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수요 기반, 해외산업단지, 투자유치, 해외진출의향
